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명 : 지방기록물관리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비전

발표 1.

지방향토사료와 마을기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대안

김 화 경

아카이브연구소
Email: kimhk0629@naver.com

‘향토(鄕土)’의 의미는 다양하게 쓰이지만 ‘지방향토사료’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의 생활, 지역사회문화 등 지역사람들의 공동체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료를 일컬을 수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마을공동체 복원의 일환으로 지역사료관리, 마을기록 관리, 마을기록가 양성, 마을 아카이브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활에 대한 아카이빙과 함께 마을의 기록을 관리하고, 나아가 마을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 복원의 매개체로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방향토사료 및 마을기록 관리의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기록’을 넘어 그 마을만이 지닌 역사와 문화, 그 마을에서만 전해오는 풍습, 그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해야 하며, 마을 주민들의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기록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지방향토사료 및 마을기록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역사, 문화, 주민들의 모습 등에 대한 수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마을)연표 관련자료 수집, 장소정보 수집, 이야기 수집, 이벤트 수집 등 다양한 수집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살펴보고 실제 시스템 구축 사례 및 온라인 서비스 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